

대학생활 기대-만족차이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연구 : 성격적 특성 매개효과*

김상아(金相亞)**
이기학(李起鶴)***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297명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기대-만족 차이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성격적 특성(낙관성, 외향성, 신경증)이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중다 회귀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대학생활 기대-만족차이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성격적 특성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활에 대한 입학 전의 기대감과 입학 후에 지각하는 만족감의 차이가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낙관성, 외향성, 신경증, 심리적 안녕감, 대학생활 기대-만족 차이

I. 서론

오늘날 청년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학교육을 받고 있게 됨에 따라 대학생활은 개인의 삶을 이루는 세부영역처럼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삶의 영역중 하나이다(Andrews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생활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높은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을 사회에 건강하게 잘 적응(임전옥, 2003)시키고, 더불

* 본 연구는 'BK21 지원사업인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 인력 양성 및 실용화사업단'에 의해 수행됨.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정교수

어 개인에게 효율적인 생활패턴을 유지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유능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데 도움(이창호, 탁진국, 최훈석, 1994)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다른 연령대 구성원보다 안녕감 수준이 낮다고 한다(Park, Koo, & Won, 2004).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영역인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연구들이 증가추세에 있다(Roberts & Clifton, 1992; Benjamin, 1994; Schmuck et al., 1999).

심리적 안녕감은 행복을 지각하는 정도로 한 개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되며, 개인의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자율성, 환경 통제력의 6가지 차원의 하위요인을 포함하고 있다(Ryff, 1989; 이진환, 김태희, 2001; 이현숙, 2004). 이러한 정의로 볼 때, 대학생활에서 자신이 얼마나 만족하는지의 여부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행복 및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현재 느끼는 만족 뿐 아니라 개인의 동기수준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안하며(Lyubomirsky, 2001; Sheldon & Lyubomirsky, 2006; 김정호, 2006, 2007), 특히 개인의 욕구, 목표 및 기대와 경험하는 만족간의 일치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Kalish, 1975; Lyubomirsky, 2001; 최혜경, 1984; 김명국, 2007; 황주연, 2007). 이는 자신이 지각한 삶의 여건과 스스로 설정한 기준과 일치하는 경우에 행복하다고 느낀다(Kim et al., 2003)고 볼 수 있으며, 기대하는 수준의 달성정도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다르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대학생활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알아본 연구는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수준과 만족정도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여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기존보다 대학생활에서 경험하는 주관적인 충족감과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의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과 대학입학 후에 느끼는 만족감의 차이를 대학생활 기대-만족차이라 명명하고, 이와 관련하여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먼저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만족 차이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 기대란, 선호에 가까운 이상적인 상태로(금명자, 2007) 자신이 설정한 이상에 도달하려는 개인의 욕구, 바람 및 희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대의 정의를 토대로 볼 때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는 대학 시기라는 미래의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망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만족 차이란 대학 시기라는 특정한 상황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학 입학 전에 개인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대학생활과 입학 후에 지각하는 실제적인 대학생활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청소년시기에 누리지 못했던 심리적 욕구들이 대학 시기라는 자유로운 시점에서 충족될 수 있

도록 희망함으로 보였다. Baker외의 연구자들은 대학생 대부분이 대학생활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입학하지만, 입학 후 대학생활에 대해 지각하는 기대와 현실간의 불일치는 대학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Baker, McNeiland and Siryk, 1985). 이는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만족 차이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Pervin(1968)은 대학생이 대학생활에 가지는 요구, 태도, 목표, 기대와 실제적인 여건이 일치한다면 더 높은 수행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반면, 불일치한다면 수행을 감소시키며, 불만족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제안하였다. 아울러 현재 자신이 지각하는 삶의 질이 자신이 설정한 기준과 일치한다면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위와 맥을 같이 한다(김경순, 2006). 즉, 청소년기에 누리지 못했던 욕구들이 대학생활을 통해서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과거에 어느 정도 가졌으며, 현재 경험하고 있는 만족감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지각하는지는 대학생활에서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학생활 기대-만족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김지현(2006)이 개발한 대학생활 만족도 척도를 변형하여 대학생활 기대-만족 차이척도를 구성하고 이를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느낄 수 있는데(Ryan et al., 1996), 특히 선천적으로 타고난 심리적인 욕구가 만족이 될 때 심리적 안녕감을 더 높게 느낀다(Deci & Ryan, 1985)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기대이론(Lawler & Porter, 1967)에서는 사람마다 개인의 기대 및 욕구의 발현이 다를 수 있고 그로 인한 만족감 또한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성격특성과 개인의 기대 및 만족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즉 기대와 만족간에 일치됨을 느껴도 개인적 특성에 의해 심리적 안녕감을 다른 수준으로 경험할 수 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로 볼 때, 기대일치와 심리적 안녕감은 내적인 심리적 속성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유추 할 수 있으며, 기대와 만족간의 일치로 인한 심리적 안녕감을 느끼게 되는 과정에 매개변인이 존재할 수 있음 또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질적인 특성이 강한 성격특질은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만족차이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에서 그 특성상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이전 연구들은 성격특성 중 특히 낙관성(김지연, 이동귀, 2009; Scheier & Carver, 1993; Chang, Maydeu-Olivares & D'Zurilla, 1997; 김민정, 2006), 외향성과 신경증(Costa & McCrae 1980; Headey & Wearing, 1992; Watson & Clark 1992; Kwan et al., 1997; Schimmack et al., 2002)의 성격특질이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높음을 여러 차례 보고하고 있다. 낙관성은 나쁜 일 보다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는 경향성(Scheier & Carver, 1993)으로, 낙관적인 특성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보이며(Chang, Maydewu-Olivaries & D'Zurilla, 1997)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낙관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힘든 감정을 덜 느껴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Andersson, 1996). 또한 외향성, 신경증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외향성은 사회성, 활기와 같은 기질적 특성으로 행복감과 높은 상관성이 있고, 신경증적 경향은 불안, 적의, 충동성과 같은 특질과 높은 상관성이 있어 불행함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은경,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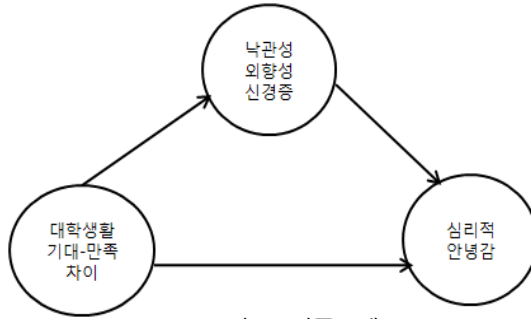
기존에 성격특성과 기대-만족차이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지만,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성격특성과 대학생할 기대-만족 차이 간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두 변인간의 관계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구체적으로, 대학생할에 대한 기대-만족차이를 높게 지각하더라도 낙관적이고 외향적인 성격특질을 가진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수용과 긍정적인 재해석을 활용(Scheier, Weintaub & Carver, 1986)하여 현실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고 이는 심리적 안녕감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반면 신경증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평소 걱정, 근심 수준이 높아 좌절을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인혜, 1997)으로 대학생할에 대한 기대불일치를 크게 받아들여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할 기대-만족 차이가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매개로 해서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시기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변인을 탐색하고, 매개변인으로서의 성격적 특성의 기제를 파악함으로써 성격적인 속성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대학 학교 장면에서의 효과적 개입과 차별적 상담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할 기대-만족 차이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성격적 특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은 심리적 특성을 배제한 채 기대와 만족간의 일치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의 영향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할에 대한 기대와 만족간의 차이가 개인의 성격적 특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할 기대-만족 차이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낙관적 성격특성이 매개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할 기대-만족 차이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외향적 성격특성이 매개할 것이다.

셋째, 대학생할 기대-만족 차이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신경증적 성격특성이 매개할 것이다.



[그림 1] 이론모델

II.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학과 연구심의위원회(DRC)의 승인을 받아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 세 곳에 재학 중인 대학생 29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참가자들은 심리학 전공과 교양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 자발적 신청으로 참여하였다. 총 297명의 자료 중,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126명(42.4%), 여학생이 171명(57.6%)이었으며, 1학년이 53명(17.8%), 2학년이 95명(32.0%), 3학년이 95명(32.0%), 그리고 4학년이 54명(18.2%)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1.38($SD=2.19$)였고, 연령분포는 18세-30세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구학적 질문과 변인 측정도구로 구성된 질문지를 실시하였고 학과 연구심의 위원회(DRC)의 지침에 따라 참여자 모집, 자료수집, 자료관리가 이루어졌다.

2. 측정 도구

1) 낙관성 측정도구

낙관적인 성격특질을 측정하기 위해 Scheier와 그 동료들(1994)이 낙관성 측정을 위해 개정 보완하고 김세희(2003)가 번안하고 개정한 삶의 지향성 검사(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3개의 문항은 긍정적 진술 문항이고(예: 나는 항상 내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다), 3개의 문항은 부정적 진술 문항이다(예: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를 걸지 않는다). 나머지 4문항은 실험 참가자들이 질문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만든 문항들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

단계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 요인만을 측정하기 위해 3개의 긍정 문항과 역산된 3개의 부정 문항을 채점하여 함께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과 미래에 대한 시각이 긍정적임을 나타내어 낙관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Scheier와 그 동료들(1994)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78, 그리고 김민정(2006)에서 .67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전체 문항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70으로 나타났으며, 낙관성 측정을 위한 긍정적 문항과 역 채점한 부정적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67로 나타났다.

2) 신경증 측정도구

신경증을 측정하기 위해 Costa와 McCrae(1992)가 구성한 NEO-PI-R을 이승은(1993)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NEO-PI-R은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의 성격의 다섯 요인을 측정하는 총 240문항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인들은 6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의 다섯 요인 중 신경증을 측정하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NEO-PI-R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의 5단계 Likert 척도로 평가 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외향성과 신경증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승은(1993)이 보고한 신경증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91이었다.

3) 대학 생활 기대-만족 차이 측정 도구

대학 생활 만족에 대한 입학 전의 기대감과 입학 후 지각하고 있는 만족감,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기대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김지현(2006)이 개발한 대학 생활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의 직장 생활에서의 삶의 질과 욕구 만족 이론 연구를 기반으로 대학 생활 만족도에 맞게 재구성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여 총 27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대학생 생활 만족도는 건강 및 안전 욕구, 경제적 욕구, 사회적 욕구, 자아존중의 욕구, 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의 7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 생활에서 경험 할 수 있는 경험들에 대해 각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 '전혀 아님(1)'에서 '매우 그러함(5)'의 5단계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욕구를 제외한 총 24문항을 사용하여 대학생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대학생활에 대한 입학 전의 기대와 현재 느끼고 있는 만족의 차이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동일한 문항에 대한 과거의 기대와 현재의 만족으로 분류하여 두 번 측정하였고, 현재의 만족감 결과에서 과거의 기대감 결과를 차감하여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와 지각된 만족간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이때 점수 분포는 최저 점수 -120를 0으로 하여 최고점수 240(원점수 120)까지로 하였다. 또한 대학생활 기대-만족 차이를 측정할 때 과거의 기대

를 기억에 의존하여 측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만족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재 만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 간 과거기대 점수에서의 유의미한 차이여부를 확인하였다(현재만족 높은 집단 $M=93.94$, $SD=14.94$; 현재만족 낮은 집단 $M=83.70$, $SD=16.32$; $t=5.46$, ns). 그 결과 현재 만족과 과거 기대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측정방식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4로 나타났다.

4) 심리적 안녕감 측정도구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 PWBS)를 국내에서 김명소 외(2001)이 요인 분석하여 46문항을 선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아수용, 환경통제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의 6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에 따라 평정 되었다. 1점은 '전혀 아니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안녕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설진미(2006)에서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전체 문항간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90, 김지영(2007)에서는 .91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 전체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90이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자료의 통계 분석을 위해서 SPSS 15.0을 사용하여 데이터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성격특성이 대학생생활 만족에 대한 기대차이를 매개로 하여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회귀 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은 매개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셋째, 매개변인이 종속 변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넷째, 종속 변인에 대한 독립 변인의 영향력은 매개 변인을 투입한 후에 감소해야 한다. 이때 독립 변인의 β 계수가 매개 변인 추가 시 무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지면 완전매개, β 계수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감소만 한다면 부분매개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III. 연구결과

1. 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차이검증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전체 참가자는 총 297명이었으며,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126명 (42.4%), 여학생이 171명(57.6%)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1.38(SD=2.19)였고, 1학년이 53명(17.8%), 2학년이 95명(32.0%), 3학년이 95명(32.0%), 그리고 4학년이 54명(18.2%)으로 2학년과 3학년의 비율이 다른 학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조모형분석에 앞서 연구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평균값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다변량 분산분석(One-way M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신경증과 심리적 안녕감의 변인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학년에 따라서도 모든 변인들에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매개 모형 검증에서 성별과 학년을 모두 통제하고 분석하였다.

<표 1> 성별에 따른 각 변수들의 평균(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남학생 (<i>n</i> = 126)	여학생 (<i>n</i> = 171)	<i>F</i> (1, 295)
낙관성	11.18(2.18)	10.97(1.99)	.756
외향성	156.90(20.70)	159.34(20.42)	1.030
신경증	145.61(9.93)	142.96(9.50)	20.614***
기대-만족 차이	116.44(15.90)	113.19(18.58)	2.501
심리적 안녕감	145.61(9.93)	142.96(9.50)	5.460*

* $p < .05$, *** $p < .001$.

<표 2> 학년에 따른 각 변수들의 평균(표준편차) 및 차이검증

	1학년 (<i>n</i> = 53)	2학년 (<i>n</i> = 95)	3학년 (<i>n</i> = 95)	4학년 (<i>n</i> = 54)	<i>F</i> (1, 295)
낙관성	11.17 (1.78)	10.91 (1.93)	10.67 (2.31)	11.91 (1.95)	4.48**
외향성	159.06 (21.59)	155.64 (19.95)	156.34 (18.94)	165.72 (21.94)	3.27*
신경증	150.08 (20.35)	145.35 (19.12)	146.18 (21.53)	137.26 (20.68)	3.79*
기대-만족 차이	100.91 (17.16)	110.14 (15.14)	112.43 (18.33)	112.06 (18.17)	3.64**
심리적 안녕감	142.72 (8.72)	141.54 (8.51)	144.95 (10.93)	148.39 (9.10)	5.82***

* $p < .05$, ** $p < .01$, *** $p < .001$.

2. 변인들의 평균과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낙관성, 외향성, 신경증, 대학생생활 기대-만족차이, 심리적 안녕감의 모든 주요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3>에 제시하였다. 측정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낙관성, 외향성, 신경증, 대학생생활 기대-만족차이,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상관분석을 이용한 매개효과 가정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는 각각의 매개효과 검증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표 3> 측정 변인들의 상관 및 평균(표준편차) (N=297)

	1.	2.	3.	4.	5.
1. 낙관성					
2. 외향성	.464**				
3. 신경증	-.482**	-.225**			
4. 기대-만족차이	.201**	.169**	-.280**		
5. 심리적 안녕감	.519**	.462**	-.553**	.363**	
<i>M</i>	11.06	158.30	144.99	114.57	144.08
<i>(SD)</i>	(2.07)	(20.54)	(20.70)	(17.54)	(9.76)

** $p < .01$, *** $p < .001$.

3. 성격적 특성의 매개효과 검증

앞서 언급한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조건인 성격변인들과 대학생생활 기대-만족 차이,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상관관계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았을 때, 모든 성격변인들과 대학생생활 기대-만족 차이, 심리적 안녕감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낙관성, 외향성, 신경증의 성격변인들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대학생생활 기대-만족 차이의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겠다.

각 변인에 대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4>와 같다. 먼저 성격적 특성(낙관성, 외향성, 신경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통제변인인 성별과 학년을 투입하고, 다음으로 매개변인인 성격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생활 기대-만족차이의 회귀식에서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했을 때 β 값이 .323($p < .001$)에서 .237의 유의미한 값으로 변화하였다. 외향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는 대학생생활 기대-만족차이의 값이 .323($p < .001$)에서 .256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그 값이 변화하였다. 또한 신경증을 매개변인으로 하였을 때 β 값이 .323($p < .001$)에서 .210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그 값이 변화하였다.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Sobel,

1986)을 실시한 결과, 낙관성의 매개효과는 대학생활 기대-만족차이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Z=4.35(p<.001)$, 외향성의 매개효과는 Sobel 검증 결과, $Z=4.36(p<.001)$, 신경증의 매개효과 또한 대학생활 기대-만족차이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Z=-3.94(p<.001)$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낙관성이 포함됨으로써 대학생활 기대-만족차이가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설명량이 19.9% 증가되었고, 외향성의 경우 16.6%, 신경증의 경우는 19.8%의 설명량이 증가되었다.

<표 4> 대학생활 기대-만족차이에 대한 낙관성, 외향성, 신경증의 매개효과 검증

예언변인	B	β	ΔR^2	ΔF
1. 성별	-2.657	-.135	.018	5.460*
2. 성별 학년	-2.617 2.136	-.133 .216	.047	14.675***
3. 성별 학년 기대-만족차이	-2.044 1.516 .180	-.104 .153 .323	.100	34.922***
4. 성별 학년 기대-만족차이 낙관성	-1.750 1.320 .132 2.146	-.089 .133 .237 .456	.199	91.288***
1. 성별	-2.657	-.135	.018	5.460*
2. 성별 학년	-2.617 2.136	-.133 .216	.047	14.675***
3. 성별 학년 기대-만족차이	-2.044 1.516 .180	-.104 .153 .323	.100	34.922***
4. 성별 학년 기대-만족차이 외향성	-2.654 1.250 .142 .197	-.135 .126 .256 .415	.166	72.179***
1. 성별	-2.657	-.135	.018	5.460*
2. 성별 학년	-2.617 2.136	-.133 .216	.047	14.675***
3. 성별 학년 기대-만족차이	-2.044 1.516 .180	-.104 .153 .323	.100	34.922***
4. 성별 학년 기대-만족차이 신경증	.162 .966 .117 -.227	.008 .098 .210 -.481	.198	90.582***

종속변인: 심리적 안녕감

* $p < .05$, *** $p < .001$.

IV. 논의

본 연구 설계의 가장 근본적 동기는 대학생들에 대한 기대와 만족간의 차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데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현재 느끼는 만족감 뿐 아니라 개인의 기대와 만족간의 일치가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주로 만족도와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기대와 만족간의 차이를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삶의 영역인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적용시키고,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검증한 것이 새로운 점이라 볼 수 있겠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활 기대-만족 차이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에서 낙관성, 외향성, 신경증의 모든 성격적 특성이 부분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 기대-만족 차이 자체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성격적 특성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활 기대-만족 차이가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대와 만족간의 일치가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보고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Kalish, 1975; Lyubomirsky, 2001; 최혜경, 1984; 김명국, 2007; 황주연, 2007)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학생활 기대-만족차이와 심리적 안녕감간에 높은 정적 상관을 가진다는 본 연구결과로 봤을 때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와 일치하는 만족감을 느끼거나 기대보다 높은 만족도를 지각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와 만족간의 차이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성격적 특성에 대한 개입만큼 대학생활 기대-만족차이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대학생활 기대-만족 차이와 낙관성, 외향성, 신경증의 성격특성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활 기대-만족차이와 관련하여 낙관성, 외향성의 성격특성은 정적상관을 보였지만, 신경증의 경우는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즉 낙관적인 사람들은 긍정적 정서와 함께 높은 수준의 성취동기를 가지고, 기대 불일치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통하여 높은 성취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Taylor & Brown, 1988; 김지연, 이동귀 2009)는 선행 연구결과를 볼 때,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만큼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아 기대와 만족간의 차이를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외향적인 사람들 또한 현재생활에서 정적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높은 특성(Derryberry & Reed, 1994)으로 기대만큼의 높은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경증적 성향의 사람들은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 좌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이인혜, 1997) 현재 만족보다 과

거의 기대수준이 더 높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기대불일치를 크게 지각하게 만들 것이다. 아울러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낙관성과 외향성은 정적상관을 보였고, 신경증의 경우에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낙관적이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긍정성, 적극성, 활기와 같은 기질적 특성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쉽게 느끼지만, 신경증적 경향은 불안, 우울, 적의와 같은 특성과 관련이 높아 행복함보다는 불행함과 상관이 높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이은경, 2004; 신현균, 장재운, 2003)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위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낙관적, 외향적, 신경증적 사람들은 각기 다른 수준의 대학생활 기대-만족차이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심리적 안녕감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상담 장면에서는 대학생활에 대해 기대했던 바와 현재 만족정도가 불일치하여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만족 차이 상태를 살펴보는 동시에 성격특성을 함께 진단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강화시키기 위한 적합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학생활 기대-만족 차이를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원인으로 이해하고, 이를 초점으로 대학생활지도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 입시라는 획일화된 목표와 함께 수험생활의 굴레 안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우리나라 중, 고등학생들에게 대학생활은 전반적인 인생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점으로 지각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지각만큼 대학생활에 대한 부푼 기대감을 가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인식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입학 전의 대학생활에 대한 높은 기대(Baker, McNeiland and Siryk, 1985)수준 만큼 현실에서의 대학생활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은 드물다. 이는 대학생활에서 직면할 세부적인 것들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많지 않으며, 입학 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좌절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연세상담연구, 2005). 따라서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의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예상되는 어려움을 적절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과정이나 예비학교 커리큘럼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차원에서는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입학 전의 기대수준에 못 미쳐 심리적인 부적응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상담센터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대학생활에서의 학업과 대인관계에서 부적응적인 양상을 보인다(연세상담연구, 2005, 2006, 2007). 이는 중, 고등학교 때의 대입이라는 목표아래 일시적 성적향상을 위한 오랜 과외경험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학습이 필요한 대학에서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연세상담연구, 2005). 또한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위해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점도 학생들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입학 후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

적 부적응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학업적응력을 훈련시키기 위한 다양한 리더십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입학 전의 기대치보다 불만족스러운 대학생활로 인해 심리적인 부적응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상담센터의 존재와 서비스 내용을 활발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상담 장면에서 입학 전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으로 심리적 불편함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심리검사와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과 학년별에 따른 대학생활 기대-만족차이, 낙관성, 외향성, 신경증, 심리적 안녕감에서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일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경증과 심리적 안녕감에서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들이 신경증 하위요인과 모두 부적응으로 유의하게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기존 연구(장윤희, 2005)와는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년에 따른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특히 대학생활 기대-만족차이 변인에서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신입생이 상급생에 비해 대학생활 적응수준이 낮다(Loeb & Magee, 1992; 황상하, 1995)는 연구결과와 함께 학년마다 대학생활에서의 부적응 수준과 대학생활 기대-만족 차이수준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학년마다 다르게 지각하는 대학생활 기대-만족 차이를 심도 있게 살펴보고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아본다면 대학생활에서의 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학년마다의 여러 개인변인들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활에서의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존의 통합적인 개입에서 벗어나 학년마다 차별적으로 개입하여 상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기대-만족 차이를 측정하는데 있어 대학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경험에 대한 욕구에 대한 입학 전의 기대와 만족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건강 및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자아존중의 욕구, 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와 충족에 따른 대학생활 기대-만족 차이를 알아보았다. 하지만 대학 입학 전과 후에 어떤 욕구에서 차이가 나는지 추가 분석 후에 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의 관계를 알아본다면 더욱 실질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금명자 (2007). 전문상담교사의 학교상담자 역할에 대한 기대와 예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843-861.
- 김경순 (2006). 대학생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외의 관계분석. **학생생활연구**, 27(1), 145-176.
- 김명국 (2007). 30, 40대 가정주부의 생활 체육참여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1), 19-32.
- 김민정 (2006).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적지지를 매개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호 (2006). 동기상태이론: 스트레스와 웰빙의 통합적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2), 453-484.
- 김정호 (2007).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동기상태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25-345
- 김지연, 이동귀 (2009). 순수 낙관주의자와 순수 비관주의자의 특성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6). 대학서비스 만족도가 대학생활에서의 삶의 질과 대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 만족도와 대학생활 행복감 측정통한 대학생 삶의 질 측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현균, 장재윤 (2003). 대학 4학년생의 성격특성과 성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4), 815-827.
- 이기학, 조영아, 박원주. (2005). 2005학년도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연세상담연구**, 제21권, 28-42. 연세대학교 리더십개발원 상담센터.
- 이기학, 조영아, 신혜린. (2006). 2006학년도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연세상담연구**, 제22권, 29-44. 연세대학교 리더십개발원 상담센터.
- 이기학, 이경아, 유나현. (2007). 2007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연세상담연구**, 제23권, 1-27. 연세대학교 리더십개발원 상담센터.
- 이은경 (2004). 신경증과 외향성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긍정적 정서의 중요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혜 (1997). 성격, 유쾌한 및 불쾌한 생활경험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 NEO 성격모델의 적용, **한국 건강심리학회지**, 2(1), 209-219
- 이진환, 김태희 (2001). 대학생들의 삶의 의미원천과 안녕감. **학생생활연구**, 33(2), 31-45. 부산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 이창호, 탁진국, 최훈석 (1994). 대학생 생활 경험에 따른 정신 건강의 변화: 불안에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94 연차학술대회 학술발표 논문집**, 561-567.
- 이현숙 (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경향과 자기효능감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전옥 (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윤희 (2005). 대학생의 다섯가지(Big Five)성격특성들과 주관적 안녕감과 의 관계 연구, **학생생활 연구**, 31, 93-107
- 최혜경 (1984). 노인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상하 (1995). 대학생의 스트레스 및 대처방식과 대학생 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주연 (2007).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dersson, G. (1996). The benefits of optimism: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1, 719-725.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ew York: Plenum.
- Baker, R.W., McNeil, O.V., & Siryk, B. (1985). Expectation and reality in freshman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2(1) : 94-10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82.
- Benjamin, M. (1994). The quality of student life: Toward a coherent conceptualiz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 205-264.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hang, E. C., Maydeu-Olivares, A., & D'Zurilla, T. J. (1997). Optimism and pessimism as partially independent constructs: Relationship to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and

-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 433-440.
- Costa, P. T. & McCrae, R. R. (1980). Influence of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on subjective well-being: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68-678.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Derryberry, D., & Reed, M. A. (1994). Temperament and attention: Orientating toward and away from positive and negative sign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128-39.
- Headey, B., & Wearing, A. (1992). *Understanding happiness: A theory of subjective well-being*. Melbourne: Longman Cheshire.
- Karlish, R. A. (1975). *Late Adulthood: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Berkely: Cole Publishing Co.
- Kim, M. S., Kim, H. W., Cha, K. H., Lim, J. Y., & Han, Y. S. (2003). Exploration of the structure of happy life and development of the happy life scale among Korean adults. *Korean J Health Psychol.* 8(2), 415-442.
- Kwan, V. S. Y., Bond, M. H. & Singelis, T. M. (1997). Pancultural explanations for life satisfaction: Adding relationship harmony to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38-1051.
- Lawler, E. E. III & Porter, L. W. (1967). The effect of performance on satisfaction. *Industrial Relations*, 7, 23.
- Loeb, R., & Magee, P. (1992). Changes in attitudes and self-perceptions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college,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33, 348-355.
- Lyubomirsky, S. (2001). Why are some people happier than others? *American Psychologist*, 56, 239-249.
- Park, H. S., Koo, H. Y., & Won, S. H. (2004). Sexual function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women and their predictor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13(4), 505-513
- Pervin, L. A. (1968).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individual environment fit, *Psychological Bulletin*, 69, 6-68.
- Roberts, L. W., & R. A. Clifton (1992). Measuring the affective quality of life of university students: The validation of an instrument. *Social Indicators Research*, 27(2), 113-137.
- Ryan, R. M., Sheldon, K. M., Kasser, T., & Deci, E. L. (1996). All goals are not created equal:

An organismic perspective on the nature of goals and their regulation: In P. M. Gollwitzer & J. A. Bargh (Eds.), *The psychology of action: Linking cognition and motivation to behavior*(pp. 7-26). New York: Guilford Press.

- Ryff C. D. (1995).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 Life. *Psychological Science*, 4(4), 99-104.
- Scheier, M. F., & Carver, C. S. (1993). On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The benefits of being optimistic.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2, 26-30.
- Scheier, M. F., Weintraub, J. K., & Carver, C. S. (1986). Coping with stress: Divergent strategies of optimists and pessimis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257-1264.
- Schimmack, P., T. Kasser and R. M. Ryan (1999).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Their structure and relationship to well-being in German and U.S. College stud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 225-247.
- Schimmack, U., Radhakrishnan, P., Oishi, S., Dzokoto, V., & Ahadi, S. (2002). Culture,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tegrating process models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1313-1329.
- Sheldon, K. M., & Lyubomirsky S. (2006). Achieving sustainable gains in happiness: Change your actions, not your circumstance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7, 55-86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Watson, D., & Clark, L. A. (1992). On traits and temperament: General and specific factors of emotional experience and their relation to the five-facto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60, 441-476.

* 논문접수 2011년 1월 31일 / 1차 심사 2011년 3월 7일 / 2차 심사 2011년 5월 13일 / 게재 승인 2011년 6월 2일

* 김상아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

* e-mail : luvmintll@hanmail.net

* 이기학 : 연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동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학교심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정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 khlee2445@yonsei.ac.kr

Abstract

The Relationship Gap between Expectations of College Life and the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the Mediating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Kim, SangA*

Lee, KiHak**

This study gathered research from 297 college students on how their expectations of college life compared to their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It studied how this related to personality trai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is study considers the gap between college life expectations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s variables for predicting the effec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students.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ound that individual personality traits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fference between college life expectations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results provide an understanding of how psychological well-being is influenced by the gap between expectations of college life and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nd personality traits.

Key words : gap between expectations of college life and the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Optimism, Extraversion, Neuroticism, psychological well-being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